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방소도시 지역재생 방안: 홍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이나영**

Methods for Regional Regeneration of Local Small City by Utilizing Idle Spaces: Focusing on the Case of Hongcheon-gun*

Nayoung Lee**

요약: 본 연구에서는 홍천군을 사례로 하여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해 지방소도시의 지역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홍천군은 강원국제예술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그 용도가 문화 예술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특성을 바탕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킨 사례지역이다. 그러나 향후 유휴공간의 효과적 활용과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첫째, 유휴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유휴공간의 관리 및 운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유휴공간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유휴공간의 재생 및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연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요어: 유휴공간, 활용, 지방소도시, 지역재생, 강원국제예술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method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vitalizing the regional regeneration of local small cities through utilizing idle spaces, with Hongcheon-gun as a case. Hongcheon-gun has been changed into cultural and art space since it was selected as the venue of Gangwon Triennales, and it is an example region that vitalized local areas by utilizing idle spaces on the basis of its placeness and characteristics. For the effective future utilization of idle spaces and regional regeneration, however, first, the survey of local resources is required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dle spaces. Second, foundations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idle spaces should be constructed. Third, methods for utilization should be sough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dle spaces and local conditions. Fourth, connected projects should be vitalized in consideration of possibilities for the regeneration and utilization of idle spaces.

Key Words : idle space, utilization, local small city, regional regeneration, Gangwon Triennales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2S1A5B5A16056894)이며, 2022년 한국도
시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 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DMZ HELP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nylee515@kangwon.ac.kr)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방소도시들은 인구 감소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지역경제 침체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시·군·구 89곳 중에서 비수도권은 84곳이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은 12곳¹⁾으로 소멸위험 지역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9%에 해당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및 인구소멸 위험이 최근 3년 사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소지역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²⁾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기금 투자 계획의 평가를 위해 급하게 수립된 지자체 계획으로 인해 지방도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소도시는 지방소멸에 더욱 노출되어 있으며,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과 자생적인 대응전략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 소도시 지역 내 사회적 인구 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며,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도 요구된다. 또한 지방의 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우는 지역주체들의 역

량과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민관협력기구, 중간지원기관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로 낙후지역이나 쇠퇴지역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 정책으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인구감소 지역은 기존 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재생 및 포용정책을 실현하는 데 유용하다. 유휴공간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쓰임새에 맞도록 재활용 하는 것은 유휴공간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이나영, 2022b). 최근 유휴공간의 군부대 폐시설, 폐교 등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창출해내고 이를 지역재생의 중심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의 이미지와 장소성을 보존함으로써 지역만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있다. 2021년 9월 30일~11월 7일까지 홍천군에서는 국내 최초 3년 주기 순회형 시각예술행사인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이 ‘따스한 재생(Warm Revitalization)³⁾’을 주제로 하여 개최되었다. 탄약정비공장, 와동분교, 홍천미술관, 홍천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총 39개국에서 139명의 국내외 예술가가 참여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각예술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탄약정비공장은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발생한 군 유휴시설의 활용사례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통해 지역 유휴공간이 문화적 재생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홍천군을 사례로 하여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해 지방소도시의 지역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유휴공간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고 유휴공간의 활용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문헌연구와 현장답사를 병행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최근 지방소도시는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의 변화, 지역산업 및 고용의 이전, 주거환경의 상대적 낙후 등으로 인해 도시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지역의 인구감소문제는 지역발전의 큰 장애물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실천 전략은 부족한 실정이다. 비수도권의 지방소도시들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과 대응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며, 지역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지역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의 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우는 지역주체들의 역량과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민관협력기구, 중간지원기관 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 지방소도시 인구감소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 정책으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 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능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휴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재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공공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역의 현실에 맞는 활용방안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유휴공간 활용사례를 제시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외 사례를 보면 오슬로시는 유휴지 재생계획을 통해 도시적이고 연계적인 방향으로 계획들을 진행하였다. 주변의 공공공간 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의 제시, 유휴지 재생계획의 방향을 실제 지역을 활성화하여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변 건물 및 계획들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통합계획을 하였다(최순섭·오준걸,

2015). 영국 런던에서는 2차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관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산업시설인 항만, 공장을 항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20년간 방치되었던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새롭게 조성한 유휴공간 활용 사례이다. 영국 리버풀은 1998년 시작된 국제 현대미술 비엔날레인 리버풀 비엔날레를 통해 유휴공간 13곳을 갤러리와 펍, 넓은 극장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비엔날레가 진행되었다(최유리, 2014). 프랑스에서는 약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유휴시설인 오르세역을 복원 및 재건하여 오르세미술관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또한 독일 뒤스부르크는 방치된 산업시설인 발전소를 지역주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환경공원으로 활용하고, 독일 에센은 석탄산업 침체로 방치된 폐광 산업시설을 문화시설인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연합군 주둔지를 활용하여 생태마을인 보봉마을을 조성하였고, 일본 가나자와시는 방직공장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시민예술촌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군사기지와 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서윤정 외, 2012). 그 외 핀란드의 헬싱키에서는 산업화 시대의 공장인 현재의 유휴공간에 대해 전선공장을 KAAPOLI(까펠리)라는 예술가들의 작업장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김은자 외, 2015). 또한 군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적 재생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로 독일 카를스루에의 예술과 미디어 기술센터가 있으며, 과거 탄약공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된 공간을 예술가 집단이 건물 공간 일부를 임대해서 예술센터, 미술관 등 문화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박미연, 2022). 국외 유휴공간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공원, 마을 등 생태공간과 예술센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항만, 공장, 발전소, 기차역, 폐광 등 산업시설과 군수공장,

군사기지, 지상 병커 등 군사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한 연구로 재생적 차원에서 역사성, 장소성을 이용한 공간활용 방식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과 연계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산업지 이전에 의한 재생사례로 기존의 산업지가 다양한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유휴공간이 된 사례가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버려진 대한통운창고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재생하였다. 창작스튜디오, 전시, 공연, 생활문화센터, 작가 레지던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의 거점화를 추구하고 있다. 148아트스퀘어는 공장 이전으로 인해 폐쇄된 연초제조창을 영주시에서 주관하여 리모델링한 사례이며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시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도준석·오광석, 2019). 유휴산업시설의 재생에서 지역자산과의 연계가 지역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삼척시의 탈공업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폐시멘트 산업시설의 활용 가치를 통해 살펴본 연구도 있다. 삼척시 신기면의 한라시멘트 신기공장 유휴시설을 수변공간, 동굴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체험수련시설, 수족관, 와이너리 조성 등 폐공장의 시설활용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선 삼탄아트마인(Samtan art mine)은 과거 삼척탄좌 폐광시설을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여 새로운 창조 문화예술단지로 재생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잘 보존되었고 각종 전시 및 문화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역 산업유산으로써 장소가 지닌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김영화, 2021).

최근에는 유휴공간을 문화적 재생의 관점에서 활용의 특성과 가치에 대해 연구한 사례들이 있다. 박미연·김선영(2022)은 문화재생 관점에서 군 유휴시설의 건축물과 구조물을 통해 분단의 역사성과 냉전 이데올로기라는 장소성, 예술 프로그램 특성을 도출하고 한계점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군

유휴시설을 활용한 재생공간의 사례로 서울에는 서계동 열린문화 공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보라매공원 동작 아트갤러리, 평화문화진지가 있고, 파주에는 캠프 그리브스, 부산에는 부산시민공원, 홍천에는 탄약정비공장을 제시하였다. 주로 군부대 부지, 군사시설 등을 미술관, 소극장, 체험관 및 전시관, 공원, 시각예술 프로그램 등 문화재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선미(2023)는 지역적 맥락과 운영 특성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차이를 중심으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으로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는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방치되어 있던 교정과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4년에 폐교된 백산초등학교를 2016년 백산 생활문화센터로 개관하고 2020년부터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유리(2014)는 청주 연초제조창을 사례로 하여 비엔날레 행사장이라는 국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강조하고 지역민, 전문가의 활용방안 포럼, 시민토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덕진(2014)은 유휴공간이 지역 재활성화의 자원이면서 공공 제도권의 문화공간을 보완하는 민간 주도의 문화공간 생산에 포괄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부산의 문화공간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석정은(2021)은 국내 수도권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을 대상으로 유휴공간의 재생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공간적 특성 및 문화재생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특성 및 유형별 전략을 도출한 연구, 유휴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재생사례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김지현 외, 2018; 김민지·나인수, 2019). 이와 같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건축과 도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유휴공간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복합문화시설, 공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한 국내외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례들은 대부분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문화와 산업시설 공간을 대상으로 문화적 재생의 방법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 공원, 복합문화공간 등 물리적 건축물의 활용을 통해 정책사업의 성과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현재 인구감소 및 인구소멸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홍천군을 대상으로 유휴공간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의 활성화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3. 유휴공간의 특성에 따른 활용과 지역재생

1) 유휴공간의 유형 및 발생원인

유휴공간의 일반적 대상 범위는 기능이 상실되거나 용도가 없어진 건축물, 산업시설, 기반시설 등의 이전과 철거로 인해 발생한 이전지와 폐부지 등이며, 학교와 산업시설 등 개별 시설 중심의 논의에서 점차 도시재생

자원으로 유휴공간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면서 최근 유휴공간 개념에 대한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임유경·임현성, 2012; 추용욱, 2015). 유휴공간은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져 방치되거나 비어 있는 곳으로써 이용가능한 자원이나 시설임에도 사용하지 않아 잠재적인 활용가치가 있는 곳을 말한다. 즉 유휴공간은 물리적·기능적 쇠퇴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치를 포함한 개념이다(곽수정, 2006; 강동진, 2009; 이상준 외, 2009; 김현주·이상호, 2011; 김성진, 2013). 유휴공간은 도시 계획에 의해 도시의 모든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간이 방치되거나 용도 변경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법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유휴공간은 존재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과 활용되나 적합하지 않은 공간의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진다(최보경, 2017). 또한 유휴시설은 경제, 산업의 변화와 용도 활용의 중지로 인해 사용 가치와 효율이 저하된 대지 및 시설들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휴공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유휴공간은 물리적, 비물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건축적인 활용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물리적인 대지에 한정되어 있는 유휴지와 건축물의 재활용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나영, 2022a). 따라서 유휴공간은 현재의 쓰임이 없는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휴시설, 유휴지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유휴공간은 대상이 되는 공간이 완전히 미이용되거나

표 1. 유휴공간의 개념과 유형

유형	방치 공간	미이용 공간	저이용 공간
개념적 정의	· 기개발된 바 있으나 현재는 해당 용도로 이용되지 않거나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공간	· 기개발되거나 이용되지 않은 공간	· 기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계획밀도에 못미치거나, 인접 지역 보다 노후된 공간
개발 및 이용 상태	기개발	미개발	기개발
규모	소규모-중규모	소규모-대규모	소규모-중규모
세부유형	· 이전부지 · 폐교 · 폐공가 등	· 건축공백지 · 장기미집행시설용지 등	· 저밀침체지역 · 노후불량지역 · 노후산단 등
내용적 범위	협의		광의

자료: 김동한 외(2015)

나 방치된 상태에서부터 부분적 미이용 또는 저이용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유휴공간의 개념은 도시지역 내에서 이용되지 않거나 저이용 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방치 공간(abandoned space), 미이용 공간(vacant space), 저이용 공간(underutilized space)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유휴공간 개념은 대상의 유형과 특성, 발생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므로 관련 문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휴공간은 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도시 공동화로 인해 도심 내 유휴공간이 발생했으며, 공장, 철도 등 산업기반 시설이 폐쇄하거나 이전하고, 행정구역 개편 및 체계의 변화에 따라 행정시설과 군사시설의 이전지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광수정(2007)은 유휴공간을 ‘용도 변경 또는 변용 등에 의하여 기능을 잃은 공간’이라고 정의했고, ‘사용되지 않거나 자투리 공간’, ‘시대적 흐름의 변화나 산업의 변화로부터 용도 변경을 필요로 하는 쓸모 없는 시설’, ‘잠정적 유휴공간’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잠정적 유휴공간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역의 슬럼화로 이미지의 제고가 심각하게 고려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재래정기시장과 같이 한시적으로 이용되어 비개장일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유휴공간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유휴공간의 발생원인에 따른 사례구분은 표 2와 같다.

특히 군 유휴시설 발생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그 원인은 국토안보여건과 국방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 군 작전의 변화, 시설 노후화로 인한 현대화 시설로의 교체, 지역민의 민원이나 갈등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현대화 시설로의 교체사례로 군사시설 이전적지에 해당되는 탄약정비공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홍천군의 지역 특성과 유휴공간 활용사례

(1) 홍천군의 지역 현황 및 인구 특성

홍천군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시·군·구

표 2. 유휴공간의 발생 원인과 사례

발생 원인	구분	발생 양태	사례	
기능의 상실/ 용도 변용·변경	시설의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 철거	군사시설	군사시설 이전적지	국군기무사 이적지, 미군기지 이적지, 대전차방호시설 이적지, 탄약정비공장 이적지 등
	정보화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쇠퇴	산업시설	공장 이적지, 폐 공장, 창고	영등포 OB공장, 삼덕제지 이전지, 대구 및 청주 담배 제조창, 인천 코스코화학 등
	시설의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 철거	행정시설	행정기관 및 공공청사 이적지	도청 이적지, 정부종합청사 이전 예정지 등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전, 노후화로 인한 용도 폐기	기반시설	폐선부지, 폐역사, 페터널, 폐항만, 폐교량, 폐정수장 등	장항선 폐선부지, 구 서울역사, 당인리 화력발전소, 선유도, 뚝섬 등
	상권의 이동과 침체	잠정적 유휴공간	이용률이 저조한 지하상가 등	구 서울중앙시장 지하상가, 예술의 전당 앞 지하보도 등
기능의 부재	자연발생 자투리 공간	-	도로 및 가로 자투리 공간, 교각하부 등	교통섬, 교각하부 등 건물 사이 자투리 공간
한정적·한시적 이용	이용 특성	정기시장	개장일 제외 기간	한산 모시장, 정선5일장 등 재래정기시장

자료: 박미연(2022)

89곳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12곳 중의 하나로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된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의 전통산업 이탈, 주택·도로 등 생활환경 노후화로 도시쇠퇴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서부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의 크고 작은 지맥에 둘러싸인 중산간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춘천시, 남쪽으로 횡성군과 평창군, 동북쪽으로 인제군과 양양군,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과 인접해 있다. 홍천군의 행정구역은 1읍, 9면⁴⁾이며, 면적은 1,820.3km²로 주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홍천군의 주요 지역

은 홍천읍·북방면, 남면, 서석면 도시지역으로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관광 진단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홍천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관광 소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같은 기간보다 방문자 유입(17.4%),⁵⁾ 숙박방문자 비율(4.5%), 체류시간(1.5%), 목적지 검색량(18.7%), 관광 소비(32.4%)지수가 모든 지표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체류시간의 증가율이 저조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홍천군, 2023).

2021년 말 기준으로 홍천군에 거주하는 인구는 69,118명으로 남성이 35,602명, 여성이 33,516명이

표 3. 홍천군의 주요 지역 특성

구분	홍천읍·북방면 도시지역(구도심)	남면 도시지역(농촌지역)	서석면 도시지역(농촌지역)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청 소재지 · 도시기능이 집중된 행정·경제의 중심지 · 문화재·축제·관광지·전통시장 등 역사 문화 지역자산이 풍부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도시지역 · 양덕원 농공단지가 입지 · 면사무소 일원 가로형 상업시설이 입지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도시지역 · 시외터미널 일원 가로형 상업시설이 입지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진행

자료: 홍천군(20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 홍천군 행정구역별 세대 및 인구

(단위: 세대, 명)

행정구역	세대수	등록인구			세대당 인구수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계	남	녀			
홍천읍	15,633	34,449	17,389	17,060	2.2	6,547	320.8
화촌면	2,568	4,576	2,443	2,133	1.8	1,815	21.6
두촌면	1,340	2,442	1,216	1,226	1.8	1,060	17.3
내촌면	1,353	2,409	1,255	1,154	1.8	1,000	16.4
서석면	1,925	3,790	1,935	1,855	2.0	1,354	16.9
영귀미면	2,130	4,112	2,133	1,979	1.9	1,596	27.5
남면	3,288	6,270	3,360	2,910	1.9	1,824	52.1
서면	2,250	3,795	1,983	1,812	1.7	1,448	30.8
북방면	2,057	3,977	2,104	1,873	1.9	1,373	27.1
내면	1,693	3,298	1,784	1,514	1.9	1,069	7.3
계	34,237	69,118	35,602	33,516	2.0	19,086	38.0

주: 2021년 기준, 총거주인구 69,118명은 외국인 포함한 집계임. 내국인 인구는 68,365명.

자료: 홍천군 통계연보 2022

며 총 34,23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9,086명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다(표 4). 군 전체의 인구밀도가 38명/km²인 홍천군의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49.8%가 홍천읍에 거주하면서 높은 인구밀도(320.8)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홍천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67,294명으로 2016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홍천군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용문~홍천 철도 경제성 확보, 농공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통해 인구증가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주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지역주도의 자생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강원일보, 2023년 11월 7일).

(2) 홍천군의 유희공간 활용사례

강원특별자치도는 2013년 ‘제1회 평창비엔날레’를 개최한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격년제로 비엔날레를 개최한 이래, 최근 국제전 형식을 장기적 관점에서 트리엔날레로 개편하여 홍천에서 1회 강원트리엔날레 행사가 실행되었다. 강원작가전2019,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 이후 실시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은 이 중에 메인 행사로 3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을 이동하여 진행되는 노마딕 프로젝트이다.⁷⁾ 강원의 자연과 평화의 희망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 유희지·폐교·빈집 등 공동화 우려 지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하며 참여적·지속적·공공예술적 시각예술축제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예술 공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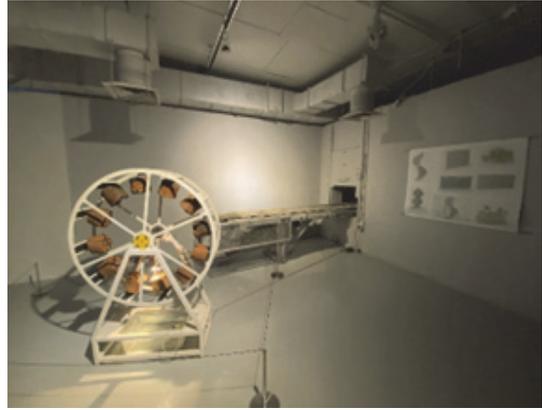
재생1이 열리는 전시장은 탄약정비공장으로 1973년에 준공되었고 한국전쟁 당시 곶이 녹슬고 부식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재래식 탄약을 전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지어졌다. 과거 1군수지원사령부 예비부대에서 사용했던 탄약정비공장에서는 소구경 탄약부터 대구경 탄환까지 약 7~800여 톤의 탄약을 한 해에 정비했을 정도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설 틈 없이 돌아갔던 시설이었으며, 홍천 육군 제11기

계화보병사단에서 탄약을 정비하는 용도로 사용한 군사시설이었다. 그러나 신형 탄약이 보급되고 난 뒤에 재래식 탄약 정비에 어려움이 생기자 탄약정비공장의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2005년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노후화된 탄약정비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주변 시설의 철거와 함께 부지 내에는 탄약정비공장 건물만 남아있게 되었다(방위사업청 매겨진 청아람). 20여 년간 폐쇄되었던 군사시설인 탄약정비공장에서는 ‘테크놀로지 아트로 기술적 재생’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유희공간을 예술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탄약정비공장의 건물 자체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내부 시설은 양호한 편이다. 571.16m² 공장 내부에는 탄약을 이동시키는 장치인 40m 컨베이어벨트와 탄약도장을 위한 공중 회전 기계, 칸막이 형태의 30cm 두꺼운 콘크리트의 폭발 방호벽도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그림 1). 유희공간이었던 탄약정비공장은 1군사령부 강원시설단과 제11기계화보병사단의 사용 허가, 강원문화재단과 홍천군의 공동 주관, 지역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시각예술축제로 탄생하였으며 군사시설을 예술 공원화한 문화예술공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지역 예술제가 개최되면서 군·관·민이 함께 상생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형성되었고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 재생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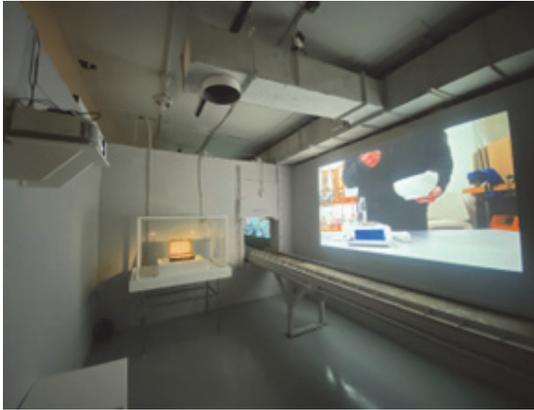
재생2가 열리는 전시장은 와동분교이며,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개교한 이래 2015년 폐교된 곳⁸⁾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유희공간을 미술 작품들로 가득한 공간으로 바꾸고, 주로 ‘생태 재생’의 의미를 담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그림 2). 방치된 폐교가 강원국제예술제를 통해 생태 위주 작품으로 구성된 예술학교로 재탄생하면서 예술 전시장으로 새롭게 변화하였다. 재생3이 열리는 전시장은 홍천미술관으로 1956년 준공되어 홍천군청사로 건축된 2층 건물이다(그림 3). 홍천군청, 읍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로 사용되다가 2013년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홍천미술관은 2004년 9월 4일, 대한



①



②



③



④

그림 1. 탄약정비공장 전시장 내부 사진(①~③), 외부 사진(④)

자료: 저자 촬영(2021년 10월 4일)



그림 2. 와동분교 입구(좌)와 외관(우)

자료: 저자 촬영(2021년 10월 4일)

민국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제108호)으로 등재되었다. 홍천미술관에서는 ‘강원트리엔날레 아카이브’ 전시를 개최하고 ‘강원도민 생활유물 아카이브전’과 일상을 주제와 소재로 삼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일상의 예술 아카이브전’을 펼치며 ‘일상 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재생4가 열리는 전시장은 홍천중앙시장으로 1970년대 말, 기존의 장터를 2층으로 키워 상설시장화 했고, 2015년부터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었다(그림 4). 홍천시장은 조선시대의 홍천 읍내장에서 기원한 전통시장으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이 함께 열리고 있다. 신 시장은 중앙시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구 시장은 홍천시장이라 부른다. 중앙시장과 홍천시장은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입구를 맞대고 있어 실제로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강원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센터). 이번 전시에서는 홍천 중앙시장과 함께 홍천전통시장에서 시장 상인과 지역민이 협업하는 커뮤니티 아트가 진행되었다. 또한 홍천 중앙시장 곳곳과 옥상 위에 흥미로운 작품들이 설치되어 ‘지역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첫 노마딕 시각예술축제로 열렸던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은 지역의 유휴공간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효과를 거두었고, 옛 탄약정비공장과 폐교 와동분교를 다양한 미술작품이 전시된 예술공간

으로 만들었다. 또한 도심 내 홍천미술관, 홍천중앙시장에도 전시를 분산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역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했다. 홍천군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1만7천556명이 전시장을 직접 찾았으며, 온라인으로 1만2천명 등 모두 3만여 명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공식 집계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전시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주말의 경우 매진이 속출하여 현장 예매 시스템을 병행하기도 했다. 온라인 영상 노출이 10만 뷰를 기록하는 등 4곳에서 진행되는 재생 전시장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는 등 지역에 미친 직·간접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연합뉴스, 2021년 11월 18일). 또한 전쟁 물품을 만들던 군사보호구역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평화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세계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강원특별자치도청 종합 홍보 잡지 동트는 강원).

3) 홍천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재생

홍천군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인구활력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림 3. 홍천미술관 전경
자료: 저자 촬영(2021년 10월 4일)



그림 4. 홍천중앙시장 남문 입구
자료: 저자 촬영(2021년 10월 4일)

지역인재 양성,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생활권 연계·협력, 특례발굴 및 지원 등 전략별 계획⁹⁾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 자산을 활용한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문화·의료·복지·교통·주거 등 정주여건 마련, 청·장년의 취업과 창업 환경 조성,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다. 홍천군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2월~3월 한 달 동안 총 454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해 홍천군을 거점으로 하는 생활인구와 정주인구의 확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천군, 2023). 지방 소도시의 인구감소 지역은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기존 공간의 보존 및 재생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내 유희공간의 활용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천적 방안 마련에 유용하다.

홍천군은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통해 군 유희지·폐교 등 공동화 우려 지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하며 참여적·지속적·공공 예술적 시각예술축제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 사례지역이다. 홍천군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지역재생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지역이미지, 관광자원 등 장소적 자산을 개발하여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즉 공적·사적 주체들이 기업과 관광객, 그리고 그 장소의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대개 도시나 마을)의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이화용, 2016).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와 특성을 분석하고 물리적 현황에서 공간의 용도를 파악한다. 소프트

웨어 측면에서는 유희공간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고, 유희공간의 유형과 특성을 활용하여 체험, 문화 등의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과 연계 및 교류가 활발하고 주민 참여도가 높도록 유희공간 활용 추진 주체가 관 주도, 민주도, 민·관 주도형인지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전시, 축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희공간이 가진 장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프로그램과 특화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지역의 잠재적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유희공간을 콘텐츠와 연계하여 공간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공간 재생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문화콘텐츠 상품이 생산·유통되는 산업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첨단문화산업, 문화관광산업, 지역축제 및 이벤트 산업, 조형예술산업으로 제시할 수 있다(표 5). 셋째, 정부나 지자체와 연계된 청년 정책을 통해 유희공간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한다. 홍천군 청년마을 ‘와썹타운’은 2023년 4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이어 6월에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도 선정됐다. 홍천군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3년간 6억 원(국비)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농촌 살기 프로그램 운영, 우사와 비닐하우스 리모델링, 로컬 주민과의 프로그램, 촌크노벨리 프로젝트(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브랜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국비 10, 지방비 10)를 지원받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홍천군 서석면 풍암2리에 주거, 사무,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2021년 홍천군 청년마을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촌강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수의 콘텐츠 기획, 마을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홍천군 청년마을 와썹타운은 마을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참신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늘리고 있다(아시아투데이, 2023년 6월 18일).

표 5. 문화콘텐츠 상품의 산업별 분류

사업별	유형	종류
첨단문화산업	지식기반 제품 및 산업기술	영화, 음반,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인쇄, 광고 등
문화관광산업	문화시설, 문화유적지, 사적지, 국립공원, 하천, 호수, 해수욕장	자연경관, 관광문화상품, 관광안내도, 토산품, 향토음식점 등
지역축제 및 이벤트 산업	전시	박람회, 비엔날레, 전시회 등
	공연	연극, 무용, 음악, 영화, 패션쇼 등
	컨벤션	각종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축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페스티벌 등
	판촉수단	샘플, 경품, 쿠폰 등
조형예술산업	공예문화상품	민예품, 전통공예품 등
	문화유물	국보, 보물, 사적, 민속자료 등
	가로시설물	환경조형물, 버스 정류장, 휴지통, 표지판, 공중전화부스 등
	문화재	유·무형 문화재
	건축물	행정시설, 숙박시설 등
	CI	캐릭터 상품, 기념품 등

자료: 김세영·이재규(2014)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홍천군을 사례로 하여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희공간의 활용을 통해 지방소도시의 지역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홍천군은 교통여건, 유입인구 등으로 볼 때 강원국제예술제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과 홍천군, 홍천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여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이 개최된 곳이다. 홍천군에서는 20여 년간 폐쇄되었던 유희 공간에 탄약을 나르던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해 다시 움직이게 했고, 강원 도민들의 생활유물을 전시하는 등 지역공동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행사는 참여적·지속적·공공예술적 행사 개최를 목표로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고 유희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추진하여 민·군·관 협력 프로젝트를 통

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상생을 이루고자 하였다. 2019년 7월 강원문화재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합한 개최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하였고,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공모 경쟁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심사에서 홍천군은 군 유희시설, 폐교 등 실험적 전시 공간 가능성을 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강원국제예술제 유치를 위한 인력 운영과 공간 활용 계획,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 등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탄약정비공장 내부의 컨베이어벨트와 칸막이 형태의 두꺼운 콘크리트벽 등의 독특한 구조물에 매력을 느낀 심사위원들은 현장평가에서 중요한 심사 요인으로 간주했다(박미연, 2022).

탄약정비공장이 위치한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마을 주민들은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아 무성하게 자란 억새밭 연변장에 산책길을 만들어 곳곳을 포토존으로 꾸미는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전시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탄약정비공장 주변에는 마을 부녀회의 판매장, 작품인 건축물에서 운영된 지역과 협업해 만든 카페와 농산물판매장, 중앙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상품권으로 관람료 5천원 돌려 주기는 전시회를 찾은 이들에게 지역경제 살리기에 마중물이 되었다(황성희망신문, 2022년 7월 18일). 국내의 작가, 건축가,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유휴공간 예술화 프로젝트, 홍천 출신 박대근 작가와 홍천군 능평리 주민 30여 명이 협업하여 만든 空-토기(土器, Pottery) 작품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예술창작 과정을 경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참여작가와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행사의 자생력과 지속력을 보여주고 있다(뉴시스, 2019년 11월 6일).

홍천군은 강원국제예술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그 용도가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특성을 바탕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킨 사례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참여적 시각예술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역 상생,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향후 유휴공간의 효과적 활용과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첫째, 유휴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가 필요하다. 유휴공간의 유형별 실태와 현황조사,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관리와 공유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유휴공간의 관리 및 운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유휴공간의 소유와 활용주체에 따른 관리 및 운영제도를 마련하고 지역과 연계된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형성,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통한 지역별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유휴공간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마을은 주민들이 주로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변마을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제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유휴공간의 재생 및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연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휴공간과 연계한 관련 법령과 계획의 개선을 통해 단계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과 융합되는 협력적인 사업들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을 장소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문화적 재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

- 1) 고성군, 양구군, 영월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삼척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이 해당된다(행정안전부, 2021년 10월 18일 보도자료)
- 2) 2021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인구과소지역 비율 변화(2018년~2021)를 살펴보면 강원·경북·충북 등 지방의 인구감소 및 인구소멸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과소지역 비율을 3년 전과 비교하면 광역·특별시 중에서는 서울(2018년 3.9%→2021년 3.8%)과 광주(18.5%→18.3%), 울산(25.9%→25.8%), 세종(23.9%→23.5%)은 낮아진 반면 대전(19.3%→19.9%), 대구(18.4%→19.4%), 부산(17.2%→18.3%), 인천(13.5%→14.1%)은 높아졌다. 도 지역에선 제주특별자치도(27.8%→26.9%)만 유일하게 3년 사이 비율이 낮아졌다. 나머지 강원특별자치도(37.1%→38.6%)를 비롯해 경북(34.3%→36.5%), 충북(32.2%→34.2%), 경남(29.8%→32.0%), 전남(28.5%→31.1%), 전북(27.4%→30.0%), 충남(22.6%→23.9%), 경기(17.4%→18.2%)도는 모두 높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3.8%로 가장 낮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38.6%로 가장 높았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이코노텔링, 2022년 8월 10일).
- 3) 재난, 환경 위기, 코로나와 각종 질병을 촉발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인류세를 맞이하여, 일상을 극복하고 홍천군의 옛 지역, 유휴 건물의 예술 재생을 통해 따스한 재생의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기술, 생태, 일상, 지역이라는 소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 온 기술과 기술 문명이 야기한 환경오염, 환경 위기와 같은 재난의 상황들을 원래의 질서로 복원하려는 생태적 관심이 자리하고 있다(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홈페이지).
- 4) 1읍(홍천읍), 9면(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영귀미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 5) 전년 동기 대비 10~19세 남성 방문자 수 증가율이 47.5%로

-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1순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2순위), 경기도 남양주시(3순위)에서 주로 홍천군을 방문하였다(홍천군, 2023).
- 6) 2016년(70,076명), 2017년(70,340명), 2018년(69,949명), 2019년(69,150명), 2020년(69,242명), 2021년(68,365명), 2022년(67,977명)이다(각 연도 12월말 기준,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7) 2회 강원트리엔날레 행사(강원작가전2022, 강원키트트리엔날레2023,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8) 13,496㎡의 야외 부지와 881㎡ 단층 건물 두 채로 이루어진 시골 학교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2월 1일 '홍천국교 와동분교'로 인가를 받았고, 1954년 4월 12일 '와동국민학교'로 개교하였으며, 1996년 3월 1일 '와동초등학교'로 개칭, 1999년 9월 1일에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으로 개편되었다. 2015년 3월 1일에 분교인 주봉초등학교에 통합되면서 62년의 역사를 끝으로 폐교되었다(홍천향토문화자료실 블로그).
- 9) 홍천군은 인구감소 대책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북방농공단지, K-Bio 첨단산업단지 지속 투자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철도, 널미재 등 교통망 확충, 문화체육시설 확충,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구축 등), 쾌적한 주거 수준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 임차비용 확대 지원,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 등),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홍천 대표 축제 확대 운영,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조성 등),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홍천뉴스, 2023년 8월 9일).

참고문헌

- 강동진, 2009, "희망제작소와 함께하는 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심 내 유휴공간 산업유산의 재활용," 도시문제 44(492), pp. 44-49.
- 곽수정, 2006,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 국토조사 국토지표 데이터베이스(DB)보고서 자료.
- 김동한·서태성·이미영·한우석·임지영·김현아, 2015,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연구, 국토연구원 15-29, pp.1-169.
- 김민지·나인수, 2019,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특성 및 유형별 전략분석 연구: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부동산연구 10(2), pp.59-76.
- 김선미, 2023, 유휴공간 문화재생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진, 2013,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세영·이재규, 2014,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유휴공간의 재생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9(3), pp.17-29.
- 김영화, 2021,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지방소도시 지역 재생 실천방안 연구: 삼척시 신기면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자·이유경·박미정·최진아·임창수·김상범, "농촌마을 유휴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22(2), pp.33-57.
- 김지현·어성신·황연숙, 2018, "유휴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재생사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3), pp.85-87.
- 김현주·이상호, 2011, "유휴공간 재활용 계획에 나타나는 도시재생개념의 영향 분석: 기존 연구에 등장하는 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7(6), pp.103-112.
- 도준석·오광석, 2019, "사례 분석을 통한 폐 산업시설 및 유휴공간 재생 방향 연구: 국내 폐 산업지 재생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1(2), pp.17-25.
- 박미연, 2022, 군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공간 특성 연구: 캠프 그리브스, 평화문화진지, 탄약정비공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연·김선영, 2022, "군 유휴시설 문화재생의 특성 및 한계: 캠프 그리브스, 평화문화진지, 탄약정비공장을 중심으로," 한국지역문화학회 9(1), pp.71-96.
- 서운정·박정운·최진영·조록환·조창완, 2012, "농촌지역의 유휴시설 활용 활성화 방안," 농어촌관광연구 19(2), pp.65-88.
- 석정은, 2021, 유휴공간의 재생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특성 및 문화재생 효과 비교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 2022a, "군 유휴시설을 활용한 접경지역 도시재생의 특성 연구: 강원도 춘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2(4), pp.206-220.
- 이나영, 2022b,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 활용과 도시재생:

- 강원도 철원군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4), pp.568-582.
- 이덕진, 2014, 유희공간을 재 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준·한상욱·이정수, 2009, “유희공간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태안 전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한국도시계획학회지 10(2), pp.125-138.
- 이화용, 2016,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유희공간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국내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유경·임현성, 2012,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희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기본-2012-3, pp.1-322.
- 최보경, 2017, “미군기지 유희공간의 문화재생 사례 연구: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46, pp.203-226.
- 최순섭·오준걸, 2015, “공공적 유희공간 재생 계획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공현상설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3), pp.2201-2211.
- 최유리, 2014, 유희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청주 연초계조창(구.KT&G)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용욱, 2015, 강원도 유희공간의 재생과 가치 제고,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509, pp.1-12.
- 홍천군, 202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 강원일보, 2023년 11월 7일, “홍천 인구 지속 감소세...7개 읍·면 주민 수 줄어”
- 뉴스1, 2019년 11월 6일, “홍천 탄약정비공장 예술공간 변신...‘강원국제예술제2019’”
- 아시아투데이, 2023년 6월 18일, “홍천 청년마을, ‘와썹타운’..인구소멸지역 새로운 활력 기대”
- 연합뉴스, 2021년 11월 18일, “홍천군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유희공간이 문화공간 탈바꿈 효과”
- 이코노텔링, 2022년 8월 10일, “지방인구 소멸 위험 더 커졌다”
- 행정안전부, 2021년 10월 18일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홍천뉴스, 2023년 8월 9일,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홍천군 대책은 매년 비슷’ 사실상 무대책”
- 황성희망신문, 2022년 7월 18일, “20년간 폐쇄됐던 탄약공장, 문화의 힘으로 활짝 열리다”
-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http://www.gwit2021.kr/> (최종열람일: 2023년 12월 8일).
- 강원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센터, <https://www.gwmarket.or.kr/> (최종열람일: 12월 10일).
- 강원특별자치도청 종합 홍보 잡지 동트는 강원, <https://www.dongtuni.com/> (최종열람일: 2023년 12월 1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최종열람일: 2023년 12월 6일).
- 방위사업청 매거진 청아람, <https://dapa-magazine.kr/> (최종열람일: 2023년 12월 16일).
- 통계청, <https://kostat.go.kr/> (최종열람일: 2023년 12월 10일).
- 홍천군 통계연보 2022, <https://www.hongcheon.go.kr/stats/statBook.do?key=1501> (최종열람일: 2023년 12월 15일).
- 홍천향토문화자료실 블로그, <https://m.cafe.daum.net/hcart/42FL/568?listURI=%2Fhcart%2F42FL> (최종열람일: 2023년 12월 10일)
- 교신: 이나영,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 전화: 033-250-6699, 이메일: nylee515@kangwon.ac.kr
- Correspondence: Nayoung Lee, DMZ HELP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Republic of Korea, Tel: +82-33-250-6699, E-mail: nylee515@kangwon.ac.kr
- 최초투고일 2023년 12월 13일
수정일 2023년 12월 20일
최종접수일 2023년 12월 28일